

영화 찍고 호텔도 있는 여기는 교도소 ‘빠빠용 Zip’입니다

1975년 개청 옛 장흥교도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개관 영화·드라마 70여 편 촬영... 전시·공연장·아카이브실·책방 등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려 법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잇따르고 있다. 비상계엄사태 이후 법을 준수하기보다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 습격 사건’은 법의 테두리보다 자의적, 폭력적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행위로 안타깝게 눈과 분노를 자아낸다.

‘교도소’는 짓밟혀 치르는 물리적인 특수 공간이다.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는 부정적이며 무서운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죄수들 대신 어린이 관람객들이 붐비고, 영화를 촬영하는 스태프가 분주한 ‘교도소’가 있다면 어떨까.

여기 ‘특별’한 교도소가 있다. 1975년 개청한 옛 장흥교도소가 심플 체험공간을 거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화제다. 최근 장흥군과 빠빠용 Zip사업단(이하 사업단)에 의해 장흥교도소가 복합문화공간 ‘빠빠용 Zip’으로 거듭난 것.

장흥군과 사업단의 유휴 공간 문화재생산업업을 통해 변신한 ‘빠빠용 Zip’이 지난달 개관식을 진행하고 현재 임시 개관한 상태다. 정식 개관은 상반기 예정.

그동안 이곳에서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더 글로리’ 등 70여 편 드라마·영화가 촬영됐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빠빠용 Zip 사업단 문화진흥팀 정주미는 “다양한 작품 촬영지로 활용되어 온 장흥교도소가 빠빠용 zip으로 거듭나 문화적 요소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간 매력을 키워 로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빠빠용 Zip’은 자유를 꿈꾸던 영화 ‘빠빠용’에 ‘집’을 결합한 합성어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고 여유를 갖는다는 뜻에서 ‘집(Zip·압축 확장자명)’이라는 명칭을 차용했다. 이런 테마를 접목, 기존 7개 동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용도에 맞는 이색 공간으로 변모했다.

연무장은 한국영상자료원 지역미디어 아카이브리인 ‘영화로운 책방’으로 재탄생했다. 내부에는 영화 관련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는데, 지역 영화인들이 도서나 필름을 기증했다.

교도소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실은 교정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1974년 이전 조선시대 장흥옥 모습과 장흥경찰서 유지장 시절 사진들,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교도소 역사 기록이 볼 수 있다. 인근 교회당은 지역예술인 전시·공연장으로



외부수용동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탈바꿈한 ‘호텔 프리즌’.

새롭게 단장했다.

직원식당이던 교정역사전시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교정사를 돌아보는 자리로 변했다. 각각 전근대, 일제강점기, 현대로 나뉜 형벌과 행형, 교도소 안에서의 의식주 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긴 복도를 따라 일렬로 배치된 회랑형 수용기실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옥상에는 다섯 개 감시탑을 배경으로 교정교화문구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외부 수용동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 ‘호텔 프리즌’도 있다. 유스 호스텔 컨셉과 교도소 테마를 접목, 향후 외부 촬영팀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옛 장흥교도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빠빠용 Zip’이 오는 봄 정식 개관한다. 프로젝트 그룹 ‘빠빠용 Zip’이 지난 12월 23일 빠빠용 zip 개관식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는 모습. (빠빠용 Zip 사업단 제공)

끔 구성됐다.

이외 수감자를 면회하던 접견실은 ‘접견 공간’으로, 1·2층 청사동은 푸드샵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사동은 레지던시로 구축했으며 안내데스크와 탈의실, 굿즈진열대를 갖춘 여행안내소도 구차 고지를 증축해 마련했다.

보안동 및 유희 시설은 교정 내 투어를 위해 보안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람객들은 교정 내부를 거닐며 시설들을 둘러보고 문화 콘텐츠들을 향유할 수 있다.

사업단은 작년부터 ‘해설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남관광재단·관광공사와 협력해 ‘남도 영화길 영화코스’도 개발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인근 영화 촬영 주요 로케이션을 발굴·연계해 빠빠용 Zip 일대를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장흥군과 협력, 다양한 부대 콘텐츠와 문화기획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일례로 교정시설 내에서 작품을 수확하는 ‘마음은 콩밭’은 회색빛 교정시설을 녹음으로 물들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이에 앞서 자유 가치를 담은 나비 형상의 제작물을 만드는 ‘거대인형 나비 제작단’, 마음을 돌아다리며 번사극을 펼치는 ‘빠빠용 유랑단’을 구성 마을 순회 상영회를 펼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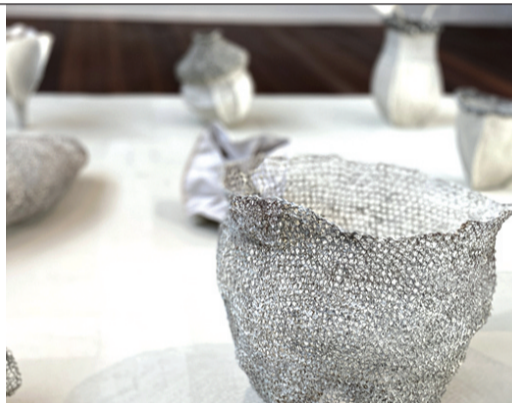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서늘과 아픔, 치유와 새로움

‘흰’



‘흰, ing’



‘흰, ing’

이미자 개인전, 2월 6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흰색의 ‘흰’은 다의적이고 포괄적이다. 다양한 개념과 상징을 내재한다. 흰은 모든 것이 제로인 상태, 백지 상태의 그것이기엔 무한한 가능성을 함의하기도 한다.

‘흰’은 또한 철학적, 인문적 사유로도 확장된다. 우리나라 백의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순수하고 무결한 상태를 뜻한다.

한강 작가의 작품 ‘흰’은 인간의 결핍과 상실을 매개로 인간 존재를 탐색했다. 언어 예술로 풀어낸 ‘흰’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흰색을 통해 서늘함과 아픔, 치유와 새로움을 탐구하는 전시가 열린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리는 이미지 작가 개인전 ‘흰, ing’.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규방공예에 회화적 요소를 결합한 조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출품작은 모두 40 점. 조각보 캔버스에 회화적 자료를 활용한 조형회화와 오브제 등이 망라돼 있다.

정현기 대표는 “이번 전시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의 공간적 의미 등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작품의 문학적, 철학적 사유 등과 연계돼 있다고 본다”며 “호랑가시나무는 한겨울에도 붉은 열매와 푸른 잎을 유지할 만큼 생명력과 희망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기억과 감정을 구조물로 형상화해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전통 공예에서 한 발 비켜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업을 시도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한편으로 사회적 관심과 가치에서 개인적 탐구로 관점을 전환해 작가로서 내 스스로의 작업에 담긴 의미를 고찰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각의 전이는 자연스럽게 작업의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전시 ‘흰, ing’가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반면 이번 전시는 감정과 기억을 철학적 개념과 연계해 구현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흰, ing’는 차분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조형감은 덩으로 맞볼 수 있다. 작품 주요 배경이나 포인트에 ‘흰’을 조형화해 흰색을 매개로 전체 작품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관람객들은 작가가 상징한 ‘흰’의 조형성을 자신이 느끼는 조형성과 비교해 그 의미를 사유할 수 있다.

한편 이 작가는 조선대 창의공학디자인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레가토’ 개인전, 코엑스디자인페스티벌, 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전 등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해외전에 참여했다. 현재 손땀 대표이자 한국과학복합재단 전문문화광주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수 예술마루에서 오는 2월 14~16일 펼쳐지는 뮤지컬 ‘시카고’. (예술마루 제공)

GS칼텍스 예술마루, 공연 라인업 풍성

뮤지컬 ‘시카고’·‘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등 무대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가 신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개관 구간을 기념하는 무대부터 입소문을 탄 뮤지컬, 해외 협업공연까지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먼저 오는 2월 14~16일에는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가 상연된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윤공주, 아이비, 박건형, 김경선, 김영주 등이 예술마루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갱 문화와 농염한 재즈 선율이 가득한 시카고 뒷골목을 그린 이야기로 ‘유혹’과 ‘살인’이 테마다.

3월 8일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같은 달 20일에는 WE Soloists가 출연하는 ‘브런치 콘서트’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 외에도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4월 11~13일),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이 함께하는 GS아트센터 협업 공연 ‘해의 오리지널 발레팀 내한 공연’(4월 24~25일)도 준비돼 있다.

5월 10일에는 예술마루 개관주년을 기념하는

‘예술마루 WEEK’가 장도에서, 22일에는 ‘브런치 콘서트’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무대에 오르는 창작발레 ‘갯’(5월 29일)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상반기 공연은 뮤지컬 ‘명성황후’로 막을 내린다. 1895년 10월 조선 주재 일본공사였던 마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공사관 수비대, 일본인 남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했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룬 작품이며 6월 27~29일 대극장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한편 대지면적 70만㎡(21만여 평)에 이르는 예술마루는 망미산 일대와 장도에 각각 대극장(1021석)과 소극장(302석)을 갖추고 있다.

예술마루 예술사업팀 황세용 팀장은 “올 한 해 준비한 공연들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한다”며 “마티네 형식의 브런치 콘서트부터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해외 교류공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공연별 관람료 상이.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중후하고 깊은 첼로 선율 속으로~

광주시향 기획연주회 ‘Cello Moments’ 2월 21일 ACC

첼로의 중후하고 깊은 선율에는 다른 현악기군과 비교되지 않는 특별함이 깃들여 있다. 오늘날 현악 오케스트라나 독주, 실내악 등에서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중요한 악기로, 바이올린족에 속하나 비올라족의 비율과 다 감바(베이스 비올라)에서 발전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기획연주회 ‘Cello Moments’를 2월 21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에서 펼친다.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오는 22일 티켓예매 오픈.

광주시향이 준비한 ‘2025 체임버 시리즈’ 첫 공연으로 이후성, 석민정, 나유빈, 장서울 등 네 명 첼리스트가 출연할 예정이다.

파케 ‘네 대의 첼로를 위한 크리스의 추억’을 비롯해 파헬렐 ‘개는 변주곡 D장조’ 등 잘 알려진 곡을 첼로 선율로 듣는다. 콤비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듀엣 Op.22 1번’과 풍크 ‘소녀타-네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등 다양한 첼로 협연곡들이 울려 퍼진다.

골터만 ‘네 대의 첼로를 위한 릴리지오소’는 느리고 경건하게 연주(릴리지오소:religioso)하는 곡이다. 게오르그 골터만은 독일 하노버 출신으로 그의 작품들은 음악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명료한 특징이 있다.

이외 비바디 ‘사계 중 봄’과 ‘가을’은 네 대 첼로로 편성, 각 악곡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킨다. 끝으로 포퍼 ‘네 대의 첼로를 위한 폴로네이즈 협주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조선대 음악교육과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석사)를 졸업한 이후성, 전남대 출신으로 경희대 음악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석민정이 활시위를 켜다. 한양대 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나유빈, 중앙대 음악학과 출신 장서울도 얼굴을 비춘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첼로는 풍부하고 깊은 음색으로 감정을 진솔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다”며 “첼로가 그리는 사색, 따뜻한 위로, 벽간 감동의 순간을 담아 관객들에게 ‘첼로만의 독보적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나유빈, 장서울, 석민정, 이후성.

매력’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석 1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등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ACC 시즌 예술인’ 모집...2월 3일까지 ACC 누리집 신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ACC와 함께 성장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ACC 시즌 예술인’은 예술극장과 함께 성장할 예술인을 선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월 3일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18세 이상 전문 공연예술인으로 국적 및 거주지, 전공 및 경력 제한 없다. 지역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거주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올해 첫 시행하는 ‘ACC 시즌 예술인’은 총 15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2차 실연 심사) 1차 모집은 어린이 공연, 레

퍼토리 공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등 3개 분야 7명이다. 추후 2차 모집도 추가 진행한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ACC 공연출연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출연료와 창작 및 연구 활동비가 지급되며, 오디션 지원 작품 의 기량과 배역이 일치할 경우 창작-제작 작품에 출연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 시즌 예술인’은 창작자로서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